

전주시의회, 내년 예산안 2조7041억원 의결

올해 의정활동 마무리... 최용철 의원 대표 발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도 채택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18일 제 416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일반회계 2조4,488억원, 특별회계 2,553억원을 포함한 모두 2조7,041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등 2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진)는 지난 17일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수정 예산안 중 74억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한 바 있다. 내년 예산안 중 삭감된 내용을 보면 만경강~백성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비 1억5,000만원과 통장한미음대회 행사운영비 4,500만원, 전북형 창업 패키지 지원 4억원, 한국비디로그 출

전 지원비 3억2,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또 모악로 확장공사 시설비 5억원과 AI 포트를 자동탐지시스템 구축 시설비 10억원, 전주권 소각지원센터 간접영향권 외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2억원,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슬러지 저류조 이전사업 4억원, 완산·덕진구청 청소차량 구입 2억3,000만원 등도 모두 삭감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용철(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결의안에서 “전국 기초의회에서는 시·군·구의 사무에 대해 예산과 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에 따라 행정감사 및 조사를 실시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있고,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위임 사무에 대해 시·군·구의회가 감사를 실시해 왔던 것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행안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 간의 기초의회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고, 전국 3,000여 기초의원 의원과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며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올해 임시회와 정례회 등 10차례 회의에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모두 27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시장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16건의 시장질문과 106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도 제시했다. 남관우 의장은 “전주시의회는 연말 비상계엄 사태로 발생한 정국 혼란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8일, 취약계층 20가구에 직접 만든 밑반찬을 전달하는 따뜻한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정성 가득 사랑의 반찬 나눔

전주 인후1동 지사협, 취약계층 20가구에 전달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신지호)는 18일, 취약계층 20가구에 직접 만든 밑반찬을 전달하는 따뜻한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인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정성껏 만든 밑반찬은 영양가 있는 식재료로 구성되어 취약계층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인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021년부터 4년째 추진 중인 반찬 나눔 사업은 지역 내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반찬을 지원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신지호 인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4년째 이어지고 있는 반찬 나눔 사업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미영 인후1동장은 “항상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인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에너지소외계층 저탄소 주택난방 플랫폼사업 성과 공유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성과공유회 가져
올해 6가구 친환경 탄소 난방 전환 성과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는 18일 전주시정연구원 회의실에서 저탄소 주택난방 플랫폼사업의 연간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저탄소 주택난방 플랫폼에는 주거복지와 탄소중립 실천을 실천하는 유관기관·단체와 시공업체 등 총 2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연탄사용 가구 등 에너지 취약 가구의 친환경 탄소난방 전환 및 전기계량기를 위해 3Kw급 가정용 태양광 설치와 내·외부 단열 집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연탄 사용 에너지 소외계층 6가구에 대해 탄소 난방 전환과 태양

광 설치 서비스가 제공됐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2024년 플랫폼사업 추진 결과 보고와 성과 영상 시청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그동안 재능기부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한 지역의 탄소난방업체인 (유)하이하우징과 (주)더데움, 태양광설비업체인 에코넥스온, 전북대학교 해비타트드림 동아리에 감사패가 수여됐다. 이외에도 이날 참석자들은 향후 추진할 플랫폼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오은주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장은 “여러 기관 및 단체와 함께 뜻을 모아 협력하여 플랫폼사업을 성공적으로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18일 전주시정연구원 회의실에서 저탄소 주택난방 플랫폼사업의 연간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2025년에도 새로운 연탄사용가구의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서비스 대상가구를 발굴하고

안전한 환경에서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코리아철물,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주)코리아철물 대표 오상표가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성금 100만원을 삼천3동 주민센터에 기탁했다. 오상표 대표는 매년 명절마다 햄 선물세트 후원, 착한가게 지정기부,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및 봉사활동에 앞장서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오상표 대표는 “작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김주관 삼천3동장은 “오상표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러한 기부 문화가 계속해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 없는 행복한 삼천3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주)코리아철물 대표 오상표가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성금 100만원을 삼천3동 주민센터에 기탁했다.

군산공공폐수처리장서 40대 근로자 3m 추락해 다쳐

18일 오전 9시51분께 전북 군산시 비응동동에 위치한 군산공공폐수처리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44)씨가 약 3m 아래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왼쪽 발목과 오른쪽 무릎 등에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폐수처리장의 물을 내보

내기 위해 설치된 배수갑문의 사다리 손잡이를 연장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을 위해 설치한 지지대 발판이 부서지며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뉴시스

부안 주물공장서 인니 국적 20대 근로자 지게차에 치어 숨져

부안군의 주물 공장에서 20대 근로자 1명이 지게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와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6시40분께 부안군 행안면의 한 주물공장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근로자 A(24)씨가 후진하는 지게차에 부딪혔다. /뉴시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지게차가 후진을 하던 중 후미에 앉아있던 A씨를 보지 못해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게차 운전자에 대해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현재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